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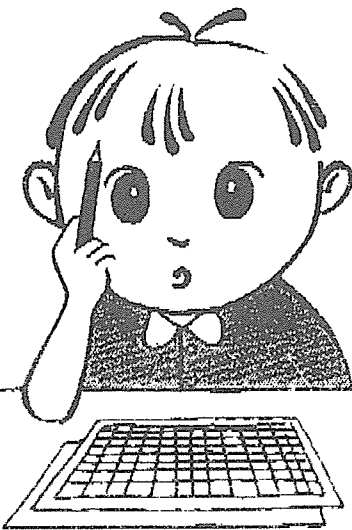
# 제11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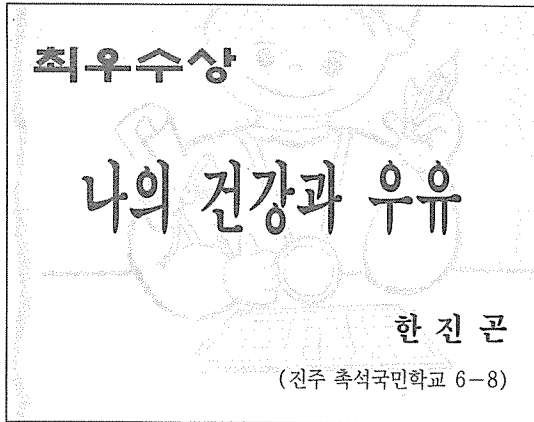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1회인 95년도에는 전국에서 총927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20명, 장려상 50명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본지는 동상이상 28편을 4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이번호에는 최우수상과 금상 2편을 실는다.





“음마야 우짜노. 하나도 맞는기 없으니 큰일 아이가.”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가을옷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내가 많이 자라서 옷을 새로 사야 할지도 모르겠다시며 이것저것 다 입어보게 하셨는데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라서 우리집은 큰 소동이 일어났다. 지난 봄에 산 베이지색 바지마저 엉덩이에서 올라가지 않자 나는 슬그머니 창피해졌고 아버지는 대견스러운듯 꺾꺾 웃으시면서

“옷은 얼마든지 사줄테니 무럭무럭 자라거라.” 하셨지만

“오, 충격, 충격! 곤아, 제발 우리나라땅 좁은 것도 기억해라.”

누나는 나의 어깨와 엉덩이를 툭툭 치며 곧 돼지 한마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놀려대었다.

“흥,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정도는 돼야 표준아닌가!”

하면서 거울 앞에서 어깨를 짝 펴고 폼을 잡았다. 피부는 까무잡잡 하지만 안경속에서 빛나는 두눈, 오뚝한 콧날, 웃고 있는 입, 거기다 단단하게 보이는 이 근사한 몸매. 그렇지만 속으로는 나 역시 놀랐다. 여름방학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키도 크고 살이 통통하게 찼다고 놀라워 했지만 이러다가 비만이 되는건 아닌가 싶어 은근히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크는 아이들은 알 수 없다더만은...”

어머니의 말씀처럼 어릴때의 나는 몹시 허약했다. 태어날때 부터 2.4kg으로 편식을 했다고 한다. 특히 우유를 싫어해서 입을 꼭 다물고 벌리지 않는가 하면 온몸의 피부가 발빌 돌아가는 것처럼 살이 없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시는데, 사진첩속의 나는 정말 팔도 다리도 말라 있었다. 보약도 많이 먹었지만 좀처럼 살이 찌지 않았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급식우유도 맛이 없다는 핑계로 받지 않았고 집에서 받는 우유도 설사가 난다면서 먹지 않았는데 칼슘과 철분이 보강된 어린이 우유라면서 어머니가 강제로 먹게 한 것이 5학년말경 이었던가 집으로 배달된 500mg 우유를 학교에 가져가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내 별명은 ‘앙팡’이 되었고 어느 사이엔가 어깨가 탄탄하게 벌어지고 다리도 굵어지기 시작했다. 4학년, 5학년때의 담임선생님께서서는 그런 나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진곤이 많이 건강해졌구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셨다.

우유의 덕을 툭툭히 봤다면 어머니는 동네 꼬마들에게 우유 먹기를 열심히 권하고 다니신다. 사촌동생 진원씨도 우유를 싫어했는데 나처럼 키크고 살이찌기 위해서 요즘은 빠지지 않고 우유를 먹는다고 한다. 외할머니께서도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 내가 먹던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외할머니도 전에는 우유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엄마! 우유 회사에서 나를 모델로 쓰지 않는대요? 내가 이렇게 우유광고를 멋지게 하는데...”

“글쎄, 엄마는 좋은 우유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오히려 유가공협회에 인사하고 싶은데?”

요즘 나는 살이 너무 찌는게 아닌가 싶어서 아

침 일찍 조깅을 하고 있다. 우유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 머리가 좋아지는 DHA가 들었다는 우유를 더 먹고 있다. 등푸른 생선에서 뽑아낸 성분이라 비린내가 난다는 슈퍼아저씨의 말씀과 달리 고소한 맛이 있는것 같다.

우유의 종류도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좋은지 나는 모르겠지만 우유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주위 사람들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권해도 도저히 못먹겠다며 우유를 먹지 않던 막내이모께서 며칠전 전화를 하셨다. 병원에 갔더니 아기의 발육이 10일쯤 늦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우유를 먹어 보기로 하셨다고 했다. 우리 이모는 연말쯤 아기를 낳을 예정인데 우유를 많이 먹고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

내친구들 중에는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나처럼 튼튼해지고 싶으면 우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사실은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동네에서나 친척들에게 우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우유를 드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워낙 마른 체격이신 어머니께서 살좀 찌는게 소원이라며 우유먹기를 권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조금 더 나이들면 알아서 마실게요.”

하시고 만다.

지금의 내모습이 되게 해준 우유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우유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하루 빨리 우유를 드셔서 우리 집이 우유가족이 되는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 금상

# 우유와 나

조한아름다움

(영주 부석국민학교 6-2)

나는 태어나던 날부터 잠을 잘 자지 않아서 어머니를 무척 힘들게 해 드렸다고 한다. 젖을 먹고 난 후 잠이 든 것 같아 살짝 내려 놓으면 금방 깨어서 보채는 바람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밤이고 낮이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그렇게 힘들게 백일이 가까웠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보채고 우는 나에게 우유를 한 병 타서 기저귀를 턱 밑에 고이고 물려 놓으신채 빨래하러 밖으로 나가셨단다. 모유가 좋다하여 그때까지 젖만 먹이셨는데 내가 하도 보채고 자주 우니까 짜증이 나서서 선물로 들어와 있던 우유를 처음으로 내게 먹이셨던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빨래를 다 마치시고 들어와 보니, 내가 우유 한 병을 다 먹은채 새근새근 깊은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하셨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내가 보챌던게 배가 제대로 부르지 않아서 였다는걸 아시고 어머니 젖과 우유를 교대로 먹이셨고 난 잘 먹고 잘 자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다.

3학년 때던가 삼촌댁에 태어난 아기가 우유 먹는걸 보고 ‘나도 우유병에다 먹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우리 아름이가 4살때까지 우유병을 물고 다니더니 옛날 생각이 나는 모양이구나.”

하시며 그 다음 시장길에 정말로 젓꼭지가 달린 우유병을 사다 주셨다. 더 크면 못해본다고 웃으시면서…….

그날부터 난 학교에서 받아온 팩 우유를 우유병에다 담아서 아기처럼 쪽쪽 빨아 먹었다. 마치 내가 다시 아기가 된것처럼 응석도 부려가면서. 그것을 보신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이 놀려대셨지만 며칠동안이나 재미있고 맛있게 우유를 먹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어머니께서는 날 우유세대라고 부르신다. 한 여름 땀이 뻘뻘 날때도 달콤한 하드 보다는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돼 있는 고소한 우유를 벌컥 벌컥 마시는게 훨씬 좋다.

이제 나는 곧 중학생이 된다. 사춘기를 앞두고 내 이마에는 청춘의 심볼이라는 여드름이 송송 솟아 나서 고민인데 어머니께서는 다른 군것질을 줄이고 대신 우유를 많이 마시라고 권해주신다. 우유의 풍부한 영양소가 피부미용에 절대적으로 좋다는 설명과 함께 우리 집에서 통통이로 통하는 나의 건강미에 우유처럼 뽀얀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진짜 멋진 우유세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상**

**나와 아톰은 우유대장**

**김민호**  
(대전 와동국민학교 2-1)

우리 집에는 아톰이라는 강아지가 한마리 있다. 내가 우유를 먹을 때마다 달라고 강충강충

뛰며 꼬리를 흔든다.

내가 우유를 마시고 조금 남겨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좋아한다.

그렇지만 우유가 조금밖에 없을 때는 나도 모자라는데 강아지한테 나누어 주려면 아깝다.

오늘 학교에서 돌아와 나혼자 우유를 먹고 강아지는 주지 않았더니 어머니께서,

“민호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했지 인정이 없구나?”

라고 하셨다.

우유를 작은 것을 먹어서 어쩔 수 없었다.

“아톰, 미안해. 다음에 우유 먹을 땐 너도 꼭 줄게.”

했더니 아톰은 혀를 날름날름 거리며 나를 보았다.

아톰은 우유라는 말을 알아 듣기 때문이다. 말을 못하니까 달라고는 못하고 내가 먹을 때만 기다리는 것 같다.

나는 우유를 무척 좋아한다.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도 우유를 마시고, 더워서 목이 마를 때도 우유를 마신다.

아톰의 밥그릇은 구멍이 세개가 있는데 한 곳에는 밥, 한 곳에는 물, 한 곳에는 우유를 부어주면 우유를 제일 먼저 먹는다. 우리 아톰도 나처럼 우유를 제일 좋아하나 보다.

오늘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혼자만 우유를 먹은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아톰을 보았는데 속상한지 누워 있었다.

냉장고에서 큰 우유를 꺼내어 내 컵에 가득 부어 놓고 아톰 밥그릇에도 조금 나누어 주었다.

좋아서 강충강충 뛰더니 맛있게 날름날름 먹었다.

“아톰, 형 먹을 때 또 줄게.”

하면서 나도 꿀꺽꿀꺽 우유를 먹고 입에 흰수염을 만들며 씩 웃었다.